

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새사람의 생활을 함

성경: 엠 4:20-21, 마 11:28-30, 14:19, 요 5:19, 30, 7:18, 10:30

- I. 우리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,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,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살아 내신 실재이어야 한다 — 엠 4:20-21.
- A.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방식이 오늘날 한 새사람이 살아야 하는 방식이다 — 마 11:28-30, 요 6:57, 4:34, 5:17, 19, 30, 6:38, 17:4.
 - B. ‘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’(엠 4:21)는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일생의 실지 상태를 가리킨다.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 안에서, 하나님과 함께,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이었다.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활 안에 계셨고,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셨다.
 - C.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셨다. 예수님의 생활에서는 항상 그 실재의 의와 거룩함이 나타났다 — 엠 4:24.
 - 1. 예수님의 인간 생활은 실재를 따른 것이었다. 다시 말하면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을 따른 것이었다.
 - 2. 바로 영광스럽게 되시고 표현되신 하나님인 이 실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사람이 창조되었다.
 - D. 우리는 실재의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받아야 한다.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라는 틀 안으로 넣어져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.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이다 — 엠 4:20-21, 롬 8:28-29, 요이 1, 요 4:23-24.
 - E. 단체적인 인격인 새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실재의 생활,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.
 - F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에 따라 살 때, 우리는 단체적인 새사람의 일상생활,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와 부합하는 생활을 할 것이다 — 엠 4:23.
- II. 한 새사람의 생활은 정확히 예수님의 생활과 똑같아야 한다. 단체적인 하나님-사람인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해야 한다 — 빌 1:19-21상, 3:10, 엠 4:20-21.
- A.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면서 인간 미덕들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.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충만되고 연합되고 적셔졌다 — 눅 1:26-35, 7:11-17, 10:25-37, 19:1-10.
 - 1.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비록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에 의해 사셨다 — 요 6:57, 5:19, 30, 6:38, 8:28, 7:16-17.
 - 2. 주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셨다. 그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부터, 그분을 통해 하신 것이었다 — 요 14:10.
 - 3. 마가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사셨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위한 것이었음을 계시한다.
 - B.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의 확대와 증가와 재생산과 연속으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사셨던 생활과 동일한 생활을 해야 한다 — 요일 2:6.
 - 1. 주님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위한 본을 세웠는데,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사는 생활이다 — 갈 2:20.
 - 2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,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,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— 마 16:24, 빌 3:10, 1:19-21상.
 - 3. 우리는 자기 계발을 거절하고 타고난 사람을 함양하는 것을 유죄판결 해야 한다.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과 하나님 자신과 연관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— 갈 5:22-23.

4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사셨던 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, 우리를 통해 사시는 그 영이시다. 우리는 이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거나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— 고후 3:17, 13:5, 엡 3:16-19.
5. 우리는 (기도의 영과 분위기 안에서)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열고,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우리에게 “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.”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— 애 3:22-23, 롬 9:15과 각주 2, 출 34:6, 시 103:8, 눅 1:78-79, 10:25-37, 롬 12:1.

III. 주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어 그분에게서 배우게 하셨다 — 마 14:14-21, 11:28-30.

- A. 마태복음 14장 19절은 그분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받으셨고, 그것들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셨다고 말한다.
 1. ‘하늘을 우러러보신 것’은 그분께서 그분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을 가리킨다.
 - a.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셨음을 가리킨다. 보냄을 받은 분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신 아버지께서 마땅히 축복의 근원이셔야 한다 — 비교 롬 11:36.
 - b.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리 잘 알고 있을지라도,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내신 분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.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공급의 통로가 될 수 있다 — 비교 마 14:19하, 민 6:22-27.
 2.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러러보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냄을 받으신, 이 땅에 계신 아들로써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— 요 10:30.
 - a.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,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.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의미한다 — 비교 고전 2:3-4.
 - b. 축복은 다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 의해서만 온다 — 비교 고후 1:8-9.
 3.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셨다 — 요 5:19, 비교 마 16:24.
 - a.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,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, 모든 것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해야 한다.
 - b.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자아를 거절하고,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또 다른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한다 — 빌 1:19-21상.
 4. 주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셨고,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구하셨다 — 요 5:30하, 6:38, 마 26:39, 42.
 - a. 주님은 그분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거절하셨다.
 - b. 우리 모두는 다음 한 가지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. 즉 우리는 어떤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을 때, 그것을 우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한다. 우리는 다만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생각과 목적과 취지와 목표와 의도를 구하며 가야 한다 — 비교 딤후 5:2하.
 5. 주님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,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다 — 요 7:18, 5:41, 비교 12:43.
 - a. 야심을 갖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— 비교 요삼 9.
 - b. 우리는 자신의 자아와 목적과 야심이 우리의 일에서 세 마리의 파괴하는 큰 ‘벌레’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. 우리는 반드시 이것들을 미워하기를 배워야 한다.
- B.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항상 쓰임 받고자 한다면, 반드시 한 새사람을 위해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, 우리의 목적을 거절하며, 우리의 야심을 포기해야 한다 — 마 16:24.